

## 드라마 미학으로 조망하는 루터의 생애: 영화 <루터>에 나타나는 ‘두려움’과 ‘자비’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박형철 (청파동교회)

- I. 들어가는 말: 역사적 텍스트와 드라마적 텍스트의 상호교차적 읽기
- II. 영화 속 실존의 이미지: 두려움
  - 1. 두려움의 주체: 루터가 오해한 하나님
  - 2. 두려움의 이미지: 죽음, 지옥
- III. 영화 속 구원의 이미지: 자비
  - 1. 자비의 주체: 루터가 찾은 하나님
  - 2. 자비의 이미지: 십자가, 그리스도, 말씀
- IV. 결론 및 제언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1>

---

• ABSTRACT •

---

The Life of Martin Luther in the Light of Drama-Aesthetics: Focused  
on the Images of Fear and Mercy in the Movie, <Luther>

Park, Hyung-Chul (Cheongpadong Church)

This paper explores the movie, <Luther> as dramatic text with drama-aesthetics. Drama-aesthetics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world and human beings with the whole-sensory-acceptance in the represented images, and this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life of Martin Luther and his theories using convergence thinking with many other hermeneutics(historical, theological, psychological) in the images. This paper especially examines the images of Luther and his contemporaries with two images of fear and mercy and investigates how Luther had overcome non-essences like fear with drama-aesthetics in <Luther>. In the view of drama-aesthetics, Luther was the human-actor who was an imitator of Jesus as the main character in the direction of God, who is the author and director in Theo-Drama. And he was good at playing the given role in the public sphere in anthropological and ethical perspective during the Protestant Reformation when the political, religious and socio-existential contexts are intertwined and interconnected. By investigating Luther's life and theological issues in the movie, this article newly suggests the possibilities of flexible approaches and critics about history and characters in the historical document. And by using images and imagination in dramatic text, this study could expand the horizon of the theological discourses and suggest positive aspects of aesthetical-ethical life and faith to the Christians today.

**Key words:** Luther, Drama-aesthetics, Image, Fear, Mercy

---

## I. 들어가는 말: 역사적 텍스트와 드라마적 텍스트의 상호교차적 읽기<sup>1)</sup>

루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종교개혁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것이며,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에 95개조 논제를 붙인 그의 행위는 종교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이유도, 매년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되는 이유도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루터라는 한 인간의 행위를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자 상징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루터의 전반적인 생애와 사상이 하나의 행위에 담길 수는 없는 것은 자명하며, 이에 그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성장과정과 신학의 발전 등 전후 상황들을 살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는 역사적 텍스트들을 통한 정치, 경제, 종교 등의 시대적 배경에 대한 고증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비텐베르크 사건을 비롯한 루터와 관련되는 여러 이미지들이 중요한 이유는 루터 시대의 상황과 그의 생애와 사상을 살필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event)들을 기반으로 각인된 잔상들을 남기기 때문이다. 즉, 역으로 말하면 중요한 사건이 이미지로 남는 것이다. 역사적 고증이 잘 반영되었다고 평가받는 영화 <루터>(Luther, 2003)는 인간 루터의 삶과 신앙에 대한 의미 있는 사건들의 이미지의 흐름이 잘 담겨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본고는 영화 속에 재현된 이미지를 통해 한 인간을 살핌으로써 객관적인 텍스트 속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상상을 통한 풍성한 이해와 고찰을 시도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

1) 드라마적 텍스트란 역사적 텍스트가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이미지로 재현된 2차 텍스트를 말한다. 이는 드라마의 광의적 개념을 기반으로 문학,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을 포함한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도 주어진 텍스트인 성경만으로는 그의 존재와 삶에 대해 극히 부분적으로만 알 수 있으며, 오히려 예수를 다룬 영화와 그 밖의 예술 속에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텍스트 이상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 2004), <선 오브 갓>(Son of God, 2014),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The Last Temptation Of Christ, 1988)에는 관점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후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훌륭하게 나타나 있으며, <갓스펠>(Godspell, 1973)이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1973) 같은 영화는 현재까지 뮤지컬로도 상연되고 있다.<sup>2)</sup> 비단, 예수 뿐 아니라 모세, 요셉, 바울 등 성서인물에 관한 영화, 문학, 뮤지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현대 예술 장르를 통해 존재하는 드라마적 텍스트(2차 텍스트)들은 그들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게 한다.<sup>3)</sup>

그렇다면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해 영화를 비롯한 드라마적 텍스트

2) 예수를 다룬 영화로는 그 외에도 <왕중왕>(The King of Kings, 1927, 1961), <골고다>(Golgotha, 1935), <마태복음>(Pier Laolo Pasolini, 1964), <위대한 생애>(The Greatest Story Ever Told, 1965), <나사렛 예수>(Jesus of Nazareth, 1977), <몬트리올의 예수>(Jesus of Montreal, 1989)가 있다. C. Marsh and G. W.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An Introduction*, 김도훈 역,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상』(과주: 살림출판사, 2007), 217-21.

3) 모세 관련 영화는 <십계>(The Ten Commandments, 1923, 1956)가 대표적이며, 모세와 요셉 이야기를 잘 표현한 애니메이션으로는 <이집트 왕자>(The Prince Of Egypt, 1998)와 <이집트 왕자 2>(Joseph: King Of Dreams, 2000)가 있다. 소설 『요셉과 그의 형제들』(Joseph and his Brothers, 1933-43)은 토마스 만(Thomas Mann)의 뛰어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며, 요셉 관련 뮤지컬로는 <요셉 여메이징>(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1968)과 <꿈의 사람 요셉>(Dreamer, 2003)이 있다. 바울에 대한 뛰어난 통찰이 담긴 작품으로는 진 에드워드(Gene Edwards)의 『이야기 갈라디아서』(The Silas diary, 1998)가 있다. CF. Marsh and Ortiz,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상』 207-12.

가 지나는 의의와 유익은 무엇인가? 기본 전제는 지나간 과거 역사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과 사건이든 역사적 기록에는 한계가 존재할 뿐 아니라 관점과 입장에 따라 역사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행간이 존재하고 역사 자체가 해석이라면 상상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텍스트의 행간 읽기를 통해 재구성된 드라마적 텍스트에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담기게 된다.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조차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상상적 허구인가에 대한 영화미학 윤리에 대한 논의가 뒤따른다.<sup>4)</sup> 하지만 그럼에도 영화와 문학 등 드라마적 텍스트를 통한 역사적 텍스트와의 상호교차적 읽기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데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전제는 드라마적 텍스트에서 재현되는 과거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며,<sup>5)</sup> 현재의 청중이나 독자는 그 속의 시대와 사건 그리고 인물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증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재현되고 연출된 작품이라면 이러한 드라마적 텍스트 속 간접체험은 청중과 독자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 직접적 사고를 함으로써 창의적이고 풍성한 고찰을 가능케 해 준다.

본고는 영화 <루터>라는 드라마적 텍스트를 드라마 미학 이론을 통해 고찰한다.<sup>6)</sup> 문학과 영화를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 미학은 재현된 이미지

4) Patricia Aufderheide, *Documentary Fil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23-25; CF. 맹수진, 모은영, 『진실 혹은 허구, 경계에 선 다큐멘터리』(서울: 도서출판 소도, 2008).

5) 현대 사용되는 가상현실 개념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가 의미한다. 이때, 만들어진 가상의(상상의) 환경이나 상황 등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지나들게 한다. 하지만, 원래 단어의 기원은 프랑스의 극작가, 시인, 배우이자 연출가인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가 자신의 책에서 극장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한 데서 기인한다.

6) 본고에서 사용하는 '드라마 미학'이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신학적 미학을 기반으로 하는 '드라마 해석학'에 대한 광의적 개념이다. 또한 이는 발타살(Hans Urs von Balthasar)

영상 속 세상과 인간을 통감각적 이해를 통해 수용하게 해 주며, 이는 루터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역사신학적, 조직신학적, 심리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론적 해석들을 이미지들 속에서 통합적 고찰을 통해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를 시도한다.<sup>7)</sup> 특별히, 세상이라는 무대를 기반으로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배우로 바라보는 드라마 미학은 영화 〈루터〉를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 또한 가능하게 한다.<sup>8)</sup> 하지만, 본고는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 담긴 루터의 인간적 모습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적 사실을

---

의 신적-드라마(Theo-Drama)와 그 이론을 재구성한 필자의 드라마 미학(또는 해석학) 이론을 포괄한다. 기본적으로 신적-드라마는 삼위일체적 계시에 대한 통전적 성찰을 근간으로 삼는다. 하지만 신적-드라마에서 인간 배우(human actor) 또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삼위일체의 사역을 돕는 주체로서 그 역할은 중요하다. 본고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 인간배우였던 루터의 삶과 신앙을 살피는 것이다. 본고의 방법론은 발타살의 신적-드라마 이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차용하는 이론들과의 융복합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접근과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의 근간에는 발타살의 존재의 유비에 대한 이론이 깔려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과 피조물인 인간배우의 미메시스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는 동시에 긍정적으로 강화한다. 유비와 미메시스에 대한 발타살의 입장 설명은 김산춘의 글로 대신한다: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 중심주의였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므로 그는 그리스도교 계시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질적 차이를 강조했다. 따라서 그가 프시와라가 말한 존재의 유비(analogia fidei)를 주장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발타살은 피조물의 자유를 보장하는 존재의 유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의 유비는 하나님의 독백(Monolog)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김산춘, 『감각과 초월: 발타살의 신학적 미학』 (서울: 분도출판사, 2003), 77-78 내용과 각주 참조. Cf. Hans Urs von Balthasar, trans. Graham Harris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I-V*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98);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5).

- 7) 드라마가 수용자에게 총체적으로 다가오는 통감각적-체험적 울림의 수용을 요구하는 다차원적 매체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은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33-35 참조.
- 8) 발타살의 신적-드라마에서 세상은 세계 무대(world stage)로, 인간은 인간 배우(human actor)로 표현된다. 드라마 미학은 구속사를 기반으로 세계 무대를 구원의 드라마의 기반 요소(ground element)로, 인간 배우를 행위 주체 요소(acting subject element)로 본다. 드라마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 40-48 참조.

통해 재현된 루터는 신화적 인물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군중을 대변하는 한 인간의 모습이다. 루터는 육하는 기질과 관계의 어려움을 가졌던, 하지만 삶과 신앙 그리고 신학에 대한 철저한 고민을 통해 구원을 추구했던 우리 중 한 명의 모습일 수 있다.<sup>9)</sup> 본고는 영화 <루터>에 나타난 개연성 있는 상상의 이미지들을 통해 그 시대와 루터의 삶과 신앙을 돌아본다. 특별히 두려움과 자비라는 두 이미지를 통해 영화 <루터> 속 재현된 루터와 군중의 이미지들을 살펴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약자 루터가 어떻게 두려움과 시대의 비본질들을 극복해 나갔는지 드라마 미학을 통해 조망한다.

## II. 영화 속 실존의 이미지: 두려움

### 1. 두려움의 주체: 루터가 오해한 하나님

영화 <루터>는 폭우와 번개 속 두려움의 고통 가운데 떨며 부르짖는 루터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는 루터의 모습은 첫 장면을 비롯해 미사 집례 장면 그리고 기도실의 장면 등 영화 초반에 중요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루터의 모습은 폭우 장면에서 외면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며 미사 장면에서는 내면의 두려움이 외적 발현으로 이어져 떨림과 실수로 표현된다. 또한 기도실의 장면은 두려움 속에서 자신 내면의 악마와 싸우는 루터의 철저한 고뇌의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먼저 폭우 장면은 1505년 루터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면에 나타나는 루터의 서원은 격렬한 뇌우 속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의 서원은 경건한 준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번개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루터의 모습은

9) 소설 『루터』에는 루터의 인간적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아내와 여섯 자녀를 둔 루터는 독특한 기질과 성품과 사회성을 지닌 인물로 나타난다. Reg Grant, *Storm*, 홍종락 역, 『마르틴 루터』(서울: 홍성사, 2004).

비참하다.<sup>10)</sup> 사실 이 장면 속 22세 청년 루터의 이미지는 자연재해를 통해 표출된 하나님의 분노 아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이다.<sup>11)</sup> 두려움 가운데 서원한 루터는 고통당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어거스틴 수도원 입회라는 확실한 길을 택했으며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sup>12)</sup>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은 미사 장면에서도 나타나는데, 빛과 색채들이 어우러진 스테인드글라스 안에서 루터가 본 예수는 아름다운 구속주가 아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하나님이었다. 성찬 중 잔을 들고 신비(mysterium)를 고백하던 루터는 떨림으로 인해 실수를 범한다. 중요한 것은 이 떨림이 잔속에 담긴 포도주와 성찬의 신비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황홀한 고백 때문에 일어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감히 마주볼 수 없는 두려움으로써의 신비의 대상 앞에서 강박적 두려움의 표출이었다는 것이다.<sup>13)</sup>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의 의식을 행하는 루터의 모습은 기도실 장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의 대사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삶이라는 고통과 연옥과 지옥의 두려움을 주는 존재로 표현된

10) 베인튼은 루터가 1505년 7월의 어느 무더운 날 '벼락을 맞고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었다'고 표현한다. 그는 그의 서원이 미리 계획되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준비마져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R. H. Bainton,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홍치모, 이훈영 역, 『종교개혁사』(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32-33.

11) 루터 시대에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로 해석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베인튼은 루터가 폭풍가운데 치는 번개를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술했다고 말한다. Roland Bainton,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Mentor Book, 1950), 22-27.

12) "루터를 양육했던 일체의 사상, 교회와 학교에서 배웠던 일체의 교훈들은 고통당하는 영혼이 의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는 가장 확실한 길을 택했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던 것이다." Bainton, 『종교개혁사』, 32.

13) 에릭슨은 루터가 에어푸르트 수도원 성가대석에서 일으킨 발작 사건을 정신분석적으로 다룬다. 그는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 상반된 감정(존경과 경멸, 사랑과 미움)이 내면에 동시에 존재하는 반대감정병존(ambivalence)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다. E. H. Erikson,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 최연석 역, 『청년 루터』(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26-34.

다. 루터에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씌워 놓아지게 해서 평생 동안 그 죄를 탕하며 지옥의 불길로 위협하는” 두려움의 주체이며 그의 피조물인 인간은 저주받은 존재이다.

루터가 하나님을 두려운 대상으로 느끼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 접근한다. 유아기와 성장기 루터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을 정신분석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학자도 있지만, 기본적인 사회-문화적 배경과 성장 배경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즉 체벌이 허용되던 시대와 지역적 배경, 미신과 악령을 믿는 광부들의 문화와 시대 풍조 그리고 가정의 상황 등 모든 요소는 두려움을 조성하는 복합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sup>14)</sup> 하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또 다른 방법론은 미학적 접근이다. 인문학과 예술이 부흥했던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살았던 루터는 다양한 서적, 음악, 회화 등을 접하면서 성장했다.<sup>15)</sup> 하지만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그의 취향과 선택은 교회와 신앙 쪽으로 기울었으며, 그의 풍부한 상상력은 심판의 날과 악마와 지옥 같은 고통과 두려움의 이미지를 생산해내는 데 사용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루터의 두려움에 큰 영향을 미친 회화로 베인튼은 <베드로의 배>를 소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정죄된 사람들을 영복과 영벌로 나누는 심판주 그리스도의 그림에서 루터가 공포를 얻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16)</sup> 즉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미지보다는 심판관의 이미지가 더 강했으며 그 이미지가 무의식

14) Erikson, 『청년 루터』, 59-78.

15) 이탈리아 중심의 인문학과 예술의 부흥에 대한 시대적 배경은 <루터, 교황에 저항하다>(EBS 특선 다큐, 2004)를 참고.

16) 루터는 “오카신(Aucassin)과 니콜레트(Nicolette)의 유희적인 목판화에서 즐거움을 찾는 대신 무지개 위에 좌정하신 심판주 그리스도의 그림에서 공포심을 얻었던 것이다. 그 그리스도 한쪽 귀에서는 백합화가 튀어나오고 다른 쪽 귀에서는 검이 솟아 나오는데 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정죄된 자들에 대한 진노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전자는 영복으로 후자는 영원한 고통으로 결정되어 있었다.” Bainton, 『종교개혁사』, 29-32.

중에 내면화됨으로써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대해 경외가 아닌 공포의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이다. 뇌우 속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루터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죽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광부의 수호성인인 성 안나의 상을 붙잡고 달려달라고 빈다. 청년 루터에게 예수는 아직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아닌 죽음과 멸망 그리고 공포의 이미지였던 것이다. 또한 청년 루터에게 미사와 성찬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죄의 은총을 통해 평안을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심판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고통의 의식이었다. 이에 루터는 기도실 장면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둔 신에게 분노와 증오를 분출한다. 그런 자신을 정죄하고 내면의 악마와 싸우며 두려움 속에 다시 절망하는 루터에게 기도실은 고통과 좌절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영화 초반의 세 장면에 나타나는 청년 루터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이고 왜곡된 이미지와 느낌의 기억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의 본질과 온전한 모습을 오해하는 모습이다. 물론 필자를 비롯한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 또한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 경외의 두려움을 느끼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안을 얻는다. 또한 그뤼네발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타나는 고통 받는 구원자 예수의 모습 속에서 추함과 아름다움의 동시성 가운데 경외의 숭고를 느낀다. 이는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루터의 시대적, 가정적, 심리적 배경으로 인한 이미지의 왜곡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의 배>에 나타난 심판주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루터의 서원을 비롯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과 신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목할 만하다. 베인튼은 그러한 두려움의 이미지 속에서 살았던 루터가 영적 시험과 민

음의 시련으로서의 쟁송(Anfechtung)을 긍정적으로 겪음으로 그의 신앙과 신학을 견고한 터 위에 세우고 발전시켰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sup>17)</sup>

세 장면 속 루터를 드라마 미학으로 바라보면, 그는 이제 막 하나님을 인도하는 구원의 드라마 무대 속에서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인간 배우의 모습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연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이에 필자는 폭우 속 서원 장면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친구의 죽음이 루터를 소명으로 이끈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으로 본다.<sup>18)</sup> 또한 이는 베인튼과 에릭슨이 공통적으로 이 사건이 바울의 다메섹의 이미지와 부합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루터의 모습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죄인이자 약자로서의 모습이며, 이제 신적이며 인간적인 드라마 속 연기를 시작하는 단계의 배우로서 익명의 군중들을 대표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루터에게 아직 하나님은 그리스 비극 속 외부적인 힘으로써의 폭력적인 신의 이미지일 수 있으며, 따라서 그에게 하나님은 아름답지도 공평하지도 않은 비미학적-비윤리적인 신일 수 있는 것이다.<sup>19)</sup> 물론 이는 다음 장에서 다루는 종교 폭력과 연결된다. 종교 지도자들의 비윤리적 교육을 통해 주입된 하나님의 왜곡되고 편향된 이미지는 하나님을 벌을 주는 두려운 존재로 인식시켰고, 결국 이는 그 시대 인간들의 삶의 실존 속에 죽음과 지옥의 이미지가 팽배하게 만들었다. 루터 또한 그러한 군중 중 한 명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

17) Michael Bauman and Martin Klauber, *Historians of the Christian tradition: Their Methodology and Influence on Western Thought*, 라운성 역, 『기독교 역사가들』(서울: 이레서원, 2002), 557-59.

18) 영화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동행하던 루터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f. Bainton, 『종교개혁사』, 32; 친구의 죽음이 루터의 소명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톨킨(J. R. R. Tolkien)과 몰트만(J. Moltmann)의 경우와 같다.

19) R. D. Dawe, "Some Reflections on Ate and Hamartia,"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sophy* 72 (1968), 89-123.

## 2. 두려움의 이미지: 죽음, 지옥

루터에게 두려움의 첫 번째 대상이자 두려움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그에게 두려움의 이유는 현세와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서 죽음과 지옥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폭우 속 ‘살려주세요!’는 자신이 징벌로 죽임당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채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의 외침이다.<sup>20)</sup> 또한 기도실에서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증오의 표현은 죄책감으로 인한 절망의 고통 속에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처참하게 떨고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는 항거이다. 영화 속 군중은 포기와 무의미 그리고 공허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며,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이미지는 고통과 좌절 그리고 죽음 그 자체이다. 또한 절망과 저주 속 자살의 이미지 속에서, 농민 전쟁 속 살육의 이미지 속에서 충격적인 죽음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영화 장면 속에 지옥의 이미지들이 직접적으로 나타날 때 그 극적 이미지들을 통한 두려움은 극대화 된다.

먼저 루터가 로마를 방문하여 성유물들을 돌아보고 면죄부를 사서 계단을 오르는 장면은 루터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시장을 경유하여 계단을 오르는 장면을 통해 그 당시 경제적-종교적 상황 속 군중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 나타나는 인간 실존은 살아남기 위해 성유물과 몸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사고 파는 모습이다. 계단 장면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의 모습을 통해 고통의 실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람들은 연옥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면죄부를 사서 계단을 오르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이미 연옥 같은 비극적 세상을 살아가는

20) 영화 속에서 군중들은 살려달라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소리치는 루터의 모습은 그런 군중들을 대변하는 듯하다.

고통과 죽음의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다. 영화 장면 중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 토마스의 이미지와 그 죽음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루터의 모습은 강렬하게 남으며, 사회적-종교적 억압과 폭력에 대해 자유를 넘어 무지한 방종과 무자비한 물리적 폭력으로 대항하는 농민들의 전쟁 속에는 끔찍한 죽음과 폐허만이 남는다. 영화에서 군중뿐만 아니라 영화를 보는 청중까지도 이미지와 극적 무대를 통해 직접적인 영향과 충격을 받는 장면은 지옥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부분이다.<sup>21)</sup> 지옥 장면은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광장에서 군중을 위해 올린 연극무대에서, 두 번째는 테첼이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 광장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설교할 때 펼친 그림에서이다. 첫 번째 무대에서 분장한 악마들에게 둘러싸여 지옥불 속에서 고통 받는 배우들을 본 군중들에게 지옥의 두려운 이미지가 다시 한 번 각인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두 번째 막 속에 그려진 지옥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사람의 확대된 이미지에 군중들이 자신을 투영시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된다.

사실 루터의 로마행이 가지는 의미는 당시 가톨릭 교리와 교황의 오류와 잘못에 대한 인식의 측면과 함께 자신의 신앙과 신학에 대해 고민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지와 시장을 들고 계단을 오르며 군중들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출처도 불분명한 성유물들을 만지고, 목각 성인 인형을 사고, 면죄부를 사서 한 계단씩 꼭대기까지 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죽음과 죽음

---

21) 드라마(연극) 이론에서 관객은 희곡, 배우, 무대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영화 속 무대를 바라보는 영화 속 군중은 제1관객이 되며, 영화와 영화 속 무대를 보는 청중은 제2관객이 된다. 그리고, 영화 속 무대와 연극은 이야기 속 이야기 (영화 속 영화, 드라마 속 드라마, 무대 속 무대)의 '액자식 구성'이다.

이후 내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계단을 오르는 루터와 군중의 모습 속에서 희망과 구원보다는 절망과 죽음의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계단의 장면을 미학적으로 바라보면, 우선 계단의 이미지는 단테의 〈신곡〉 속 천국과 지옥의 중간(middle)에 위치한 고통과 정화의 공간으로써 나선형 계단의 모습을 한 연옥(purgatory)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연옥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면죄부를 사서 계단을 오르는 군중들 스스로 이미 현실의 세상에서 연옥 같은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장면 속에서 루터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면죄부와 계단의 비본질이 군중들과 가족들 모두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미 고통과 죽음과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sup>22)</sup> 우리는 구원의 결말이 보장되지 않는 끊임없는 연옥의 계단을 오르는 군중들의 모습은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을 지고 반복해서 절벽을 오르는 〈미션〉의 멘도사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죄를 짓고 언덕 꼭대기로 영원히 바위를 굴러 올리는 벌을 받은 시지푸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죄와 죽음의 존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존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면서, 피비우스의 띠 같은 영원한 인생의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삶의 이미지일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미지는 죽음 이상의 저주일 수 있다.

단테의 〈신곡〉이라는 텍스트와 연결되는 강력한 이미지 회화인 보티첼리의 〈지옥도〉는 중세 시대의 루터와 군중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러한 당대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 테첼의 설교 장면이다. 테첼이 극적으로 사용한 지옥불 속의 인간의 모습은 〈지옥도〉의 한 인간을 확대한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는 현대 회화 몽크의 〈절규(anxiety)〉 속

22) 교회 관련 인문학과 예술을 선호하며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루터는 단테의 〈신곡〉과 보티첼리의 〈지옥도〉를 알고 있었고, 연옥과 지옥에 대한 이미지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모습과도 겹치며(overlapped) 실존을 살아가는 인간 존재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맞닿아 있다. 이미지에 대한 신학-철학적 사고는 틸리히의 세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연결될 수도 있다.<sup>23)</sup> 중요한 것은, 영화에 나타나는 종교적 무대의 설정들이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강조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교리와 연결시켜 종교적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종교적 이미지들이 당대에 만연한 모습은 문화-종교적 기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공덕을 쌓기 위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올린 연극무대에서도 나타난다. 악마와 지옥불 속 인간의 모습이 무대 뒤에 무능력한 조연으로 나무십자가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리며, 이는 비본질적 두려움의 이미지가 군중에게 직간접적으로 주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 속 시대상을 드라마 미학으로 재해석하면 비단 연극무대만이 아니라 성유물의 성지들 그리고 면죄부 판매를 위한 계단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남용한 종교적 무대 설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대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정치-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과 돈을 위해 무대를 사회 기여가 아닌 군중을 기만하는 장치로 사용했던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비윤리성과 폭력은 군중들에게 신앙 교리의 잘못된 주입을 통해 그들의 물질과 영혼 등 삶과 신앙을 착취당한다는 데 큰 악함이 있다. 이러한 종교 폭력이 결국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온 것이며 억압을 분노로 표출한 군중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인 토마스의 자살에 대해 반응하는 군중들에게도 비윤리적인 교육을 통해 세뇌당한 모습이 나타난다. 군중들은 자살한 아이는 저주받은 것이며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보인다. 심각한 것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교육에

23) 틸리히는 불안의 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는 운명과 죽음의 불안, 둘째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의 불안, 셋째는 죄의식과 정죄의 불안이다. Cf. P. Tillich, *The Courage to Be*, 차성구 역, 『존재의 용기』(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4).

영향을 받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드라마 미학적으로 볼 때, 죽음과 지옥에 대해 두려워하는 군중의 모습은 성서와 그리스 비극 속 비극적 실존을 살아가는 인물들과 비교될 수 있다. 자신의 존재적 하마르티아(*hamartia*)로 인해 타나토스(*thanatos*)의 예정 속에 살아가는 인간 배우는 포보스(*phobos*) 즉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비극적 실존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하다.<sup>24)</sup> 중요한 것은, 청년 시절 루터 또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살았지만 그는 긍정적 재송을 통해 본질로 비본질의 두려움을 극복하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유물을 만지고 경배하는 행위, 계단을 오르는 행위 그리고 면죄부에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단 꼭대기에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는다.<sup>25)</sup> 이후 루터는 자살한 사람에게 교회장을 허락하지 않는 시대의 종교적 관행을 넘어, 자살한 아이를 ‘천으로 싸서 경내 묘지에 묻는’ 용감한 변화를 시도한다. 그는 절망 속에 죽어간 영혼을 구원하고 싶었고, 자살 뿐 아니라 죽음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바로 잡고 싶었으며, 무엇보다 성령을 훼방하는 악마에 놀아나기 싫었다.<sup>26)</sup> 루터는 잘못된 신앙의 비본질적 이미지와 그에 따른 행위들을 바로 잡고 싶었고, 특별히 생명과 구원과 관련된 종교적-윤리적 교육 속에 본질을 부여하고 싶었다. 루터의 이런 모습은 드라마 미학 속에서 더 이상 꼭두각시(*puppet*)들처럼 줄에 의해 조종당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아닌, 자신

24) CF. 박형철,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 실존 관련 단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 *hubris*, *hamartia*, *thanatos*, *phobos*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8 (2016), 140-58.

25) CF. 홍지훈, “초기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에서 “신앙 약자 보호” 문제에 대한 루터와 칼 슈타트의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13 (2003), 367-68.

26) 루터는 자살이 개인적 죄악이라기보다는 사탄의 힘에 장악되어 저질러지는 악한 행위로 보았다. 그는 자살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로 단정짓지 않았다. 신원하, “자살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목회윤리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23 (2012), 197-201.

의 의지로 선택한 즉흥연기(improvisation)를 통해 신적-인간적 드라마를 주관하는 저자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연기를 펼치는 좋은 배우의 모습이다.<sup>27)</sup> 영화 <루터> 속 루터는 자신이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증오했지만 반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생송을 통해 두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군중들에게 하나님과 죽음과 구원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는 신학자이자 교육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며 영화 속에는 그 이미지가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 III. 영화 속 구원의 이미지: 자비

#### 1. 자비의 주체: 루터가 찾은 하나님

영화 <루터>에 나타난 루터와 군중들 실존의 이미지가 하나님과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고, 루터가 오해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두려움의 주체로서 심판주 그리스도였다면, 영화 전반에서 루터가 자신의 성장 배경과 시대적-종교적 교육을 통해 얻은 선지식과 이미지를 뛰어넘어 간절히 찾고 싶었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었다. 기도실에서도 하나님을 증오했던 것 같지만 사실 루터가 증오했던 대상은 두려운 심판주로서의 부분적 이미지였으며, 그런 저주의 생각을 하는 자신의 마음과 그 마음을 조장하는 악마를 증오했던 것이다.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하나님을 저주하며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살았던 루터는 예수가 버림받은 것이라는 고해신부의 말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공포에서 용서로 옮기려 노력한다. 고해신부의 권면으로 '그의 것'이 될 것을 고백하는 루터는 이때부터 자신이 간절히 찾았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앎을 추구하는

27)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48-53 참조.

모습으로 그려진다. 루터가 찾은 예수는 심판주가 아닌 고통 받은 구원자였으며 이는 죽음과 지옥에 대항하는 이미지가 된다. 그는 절망 속에 죽고 죽은 뒤에도 저주 받은 아이로 낙인찍힌 토마스를 위해 그 시대의 통념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데, 이는 자신의 그런 행동뿐 아니라 자살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신과 군중들과 세상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했고, 이에 그는 본질은 붙잡고 두려움을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회복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루터가 신학적 이론만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비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실천했다는 것이며 이는 영화 속 루터의 이미지를 통해 재현되어 있다.

먼저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육신의 아버지를 포용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불순종의 아들, 미사조차 집행하지 못하는 못난 아들이었던 루터는 폭력과 두려움의 이미지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극복한다. 오히려 교황으로부터 소환 당하는 루터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안아주는 루터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제(father)로서 자비의 이미지가 되어간다. 영화 속 루터는 이제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품었던 예수의 이미지로 성장해간다. 과부인 한나에게 영적 아버지가 되어주며, 그녀의 딸 그레테가 장애를 이겨내고 절뚝거리며 다가올 때 아이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루터의 자비로운 아버지 모습은 극대화된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아이들에게 분노와 징벌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버림받음으로 인간을 용서한 자비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장면에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던 예수의 모습이 나타난다. 결국, 루터의 삶과 신학에는 믿음의 결단과 본질을 추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시대를 변혁했던 이미지만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다음세대인 아이들에게 균형 있는 신앙과 교리를 교육시킴으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교육자와 사역자의 모습 또한 담겨있는 것이다.

루터가 자비의 아버지가 되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였다는 것은 루터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그를 도왔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으며, 영화에서 이들은 루터를 지키고 보호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영적 아버지인 고해신부와 후원자인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그들인데, 드라마 미학적으로 볼 때 루터 인생의 드라마에서 주연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조연들의 모습과 역할은 영화 속에 잘 재현되어 있다. 신앙과 신학에 대한 루터의 난문들과 지나친 자기 성찰에 대해 위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박사학위를 취득해 교수와 설교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운 고해신부는 루터의 신앙과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sup>28)</sup> 그는 기도실에서 절망과 두려움에 떠는 루터를 위로하는 아버지, 영적 아들을 지키기 위해 수도회에서 내쫓을 뿐 아니라 교황과 추기경으로부터 끝까지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하는 영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루터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집필과 설교 그리고 성서번역 등을 통해 종교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는 프리드리히 선제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물론 그러한 후원의 배경에는 당시 정치-경제적인 요소들이 작용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또한 루터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sup>29)</sup> 중요한 것은,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자기 소유의 대학의 교수이자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루터를 끝까지

28) Bainton, 『종교개혁사』, 36-37.

29) 김선영은 프리드리히의 루터 보호가 '16세기 프로테스탄트 개혁의 생존과 존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프리드리히에게 자신의 영방국가를 지키는데 있어서 루터는 교육-문화적 측면, 경제-재정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유용한 존재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 “신성로마제국 선제후령 작센의 프리드리히 현공에게 마르틴 루터의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 (2015) 참조.

지 보호했다는 것이며 영화에서 그의 모습은 루터를 전심으로 후원하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영적 약자이자 사회적 약자였던 루터는 아버지 이미지를 지닌 조연들을 통해 성장하며 거룩한 업적을 이루어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후에는 그 아버지들을 넘어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사제(father)의 역할을 감당한다. 보름스 회의 전 타협을 권고하는 고해신부에게 본질을 제시하는 루터의 모습에서, 성유물 수집으로 유명했던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말년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루터가 번역한 성서를 귀한 본질로 받아들이며 “어른이 됐어야 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sup>30)</sup> 루터는 더 이상 아이 같은 약자가 아닌 신적 정의와 사회윤리를 세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 이미지들을 통한 해석에서 나아가 이미지 뒤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드라마 미학적으로 접근해보면, 루터의 아버지 됨은 신적-드라마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을 향한 사랑의 선도권(initiative)으로부터 기인한다.<sup>31)</sup> 루터가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선함(goodness)과 자비의 방향성에 부합하는 즉흥연기를 펼쳤을 때 좋은 배우로서 자비의 아버지의 이미지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영화에 재현된 루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의 이미지를 미메시스한 것이며, 이는 장면들 속에서 십자가 신학과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루터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

30) 프리드리히와 루터는 사적으로 대면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의 논문, 63; 하지만 영화에서는 루터가 성서번역을 마친 뒤 성서를 프리드리히에게 직접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 때 프리드리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설정으로 등장하는데, 필자는 이를 영화연출의 위트이자 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31)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에게 항상 신실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준다. 이는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운 삼위일체적 사랑에 기인한다. Balthasar, *Theo-Drama IV*, 323-24, 346.

## 2. 자비의 이미지: 십자가, 그리스도, 말씀

영화 속에서 존재와 내세에 대한 비본질적 두려움의 이미지가 죽음과 지옥을 통해 재현되었다면, 루터는 이를 그리스도 중심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십자가의 이미지를 통해 재현된 장면으로는 먼저 기도실 장면이 있다. 심판의 주체인 하나님 그리고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에 몸부림치던 루터에게 고해신부가 준 것은 십자가였다. 그 때부터 몸에 십자가를 지고 다니며 절박한 순간 만나 상 대신 십자가를 먼저 붙잡기 시작한 루터는 더 이상 성유물 등 비본질적이며 능력 없는 이미지들을 붙잡지 않는다.<sup>32)</sup>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어줌(self giving)과 초순종 그리고 희생과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십자가만이 죽음과 지옥을 이기는 힘이었기 때문이다.<sup>33)</sup> 십자가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는 루터의 간절한 모습은 고통과 절망의 실존 속에서 자살하고 비윤리적 종교교육 폭력으로 인해 저주받은 아이의 시신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장면에 나타난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루터의 이미지가 강렬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보름스 회의에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갈등 속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던 루터가 십자가의 모습으로 앞드리며 재헌신하는 장면이다. 이는 처음 사제로 헌신할 때의 형식적 의식 속에서의 모습과 대조되며, 목숨을 건 두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을 보여주는 최고의 이미지로 남는다.<sup>34)</sup>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하이델베

32) 각주 25 참조.

33)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74-82 참조.

3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르크 논쟁문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신학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중요함을 말하며 십자가 신학을 강조한 루터의 모습이 영화의 중요한 순간들에 재현되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5)</sup> 영화 속 루터에게 십자가 위 그리스도는 더 이상 프리드리히의 무대 위 지옥 장면의 배경으로써 능력 없는 조연의 이미지가 아닌 비본질적 두려움을 상징하는 죽음과 악마와 지옥의 이미지들을 이기는 능력의 이미지가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는 루터의 이미지는 예배 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미지로 이어진다.

그리스도와 말씀 중심의 신학을 주장했던 루터의 모습은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가톨릭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강의하는 칼 슈타트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보다는 16절이 우선한다고 반박하는 모습에서 먼저 드러난다. 루터에게는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담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신학이 본질이었다. 본질을 강조하는 루터는 토마스의 자살 이후 성도들 앞에서 성경을 붙들고 설교하며 율법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교리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비를 통한 구원이 믿음의 핵심임을 강하게 선포한다. 아이의 자살 이후 지옥의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다시 떨고 있는 군중을 향해 루터는 “지옥에 가면 그게 어때서 그러냐”고 도전적으로 반문한다. “주님과 함께이고 그 분이 계신 곳이면 괜찮다”는 그의 극적인 대사는 군중과 영화의 청중으로 하여금 비본질적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한다. 보름스로 소환되어 교회를 떠나기 전 루터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과 신앙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설교한다. 그는 “그리스도는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계시며 각자의 마음에도 계신다. 성인들의 해골 안에 계신 것이 아

35) 김효중, “루터의 발자취,” 『루터 연구』 12 (1997), 143.

나라 서로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신다”고 말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살고(live the Word),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고 권면하며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삶이자 윤리적인 삶을 강조한다. 영화 속에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 설교할 뿐 아니라 본인 또한 그것을 붙잡으려 노력하는 루터의 모습은 보름스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선포하는 장면에서 절정에 달한다.<sup>36)</sup> 칼 슈타트의 강의와 자살과 지옥에 대한 교리 등 가톨릭교회의 자의적 말씀해석과 잘못된 권위에 본질로 맞서는 루터의 모습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 등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비본질에 맞섰던 예수와 바울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보름스에서 추기경과 황제와 제후들 앞에 선 루터의 모습은 복음을 위해 가야바와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해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 선 바울의 모습과 닮아 있다. 영화 속 루터의 모습은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결단으로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땅 끝 로마로 나아간 예수와 바울의 모습이며, 예수와 바울을 미메시스함으로써 자신의 소명과 역할을 훌륭히 감당한 신적-드라마의 인간배우의 모습인 것이다.

정리하면, 드라마 미학으로 조망하는 루터는 오직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을 붙잡기 위해 예수를 미메시스한 성서 속 신앙의 위인들처럼 신적 소외의 역할을 감당한 인간 배우였다.<sup>37)</sup> 설교자 루터는 더 이상 기도실에서 두려움에 떨던 루터가 아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을 선포하는 루터의 설교는 면죄부 판매를 위해 두려움을 조장하고 돈을 걷는 비윤리적이며 폭력적인 테첼의 웅변과는 극적으로 대

36) 영화 속 루터 또한 그 유명한 경구 “Here I Stand”를 선포한다.

37) 드라마 미학에서 신적 소외는 신적-드라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외(alienation)를 말하며 이는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의미한다. 신적 소외와 ‘소외의 아름다움(alien beauty)’에 대해서는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152-64 참조.

조된다. 영화 속 루터가 기도실 이후 끝까지 붙잡은 것은 십자가였으며, 그는 모든 비본질적 이미지들을 넘어서는 희생과 사랑에 대한 복음의 본질을 주장하기 위해 십자가 신학을 근거로 설교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자비와 사랑만이 죽음과 지옥을 이기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선포 가운데 루터는 가톨릭교회와 교황에게 반문한다. “면죄부 대신 사랑으로 안 되는가?” 면죄부가 종교개혁 시대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이라면 사랑은 본질적인 것들을 아우르는 정수이다.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말씀이 영화 속 대표적인 자비의 이미지들이라면, 공홀과 보혈과 희생을 상징하는 그 이미지들은 결국 자비의 사랑을 지향한다. 영화 속에서 자비의 주체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또한 자비의 이미지들을 붙잡는 인간배우의 모습으로 재현된 루터는 시대에 흐르는 두려움의 주체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 밖의 두려움의 이미지들을 자비의 사랑을 내포하는 본질적 이미지들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한 인간’이었다. 신앙인과 신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한 시대 속 한 인간’으로서 루터의 모습이 중요한 이유는 드라마 미학 속 인간 배우의 공공성 즉 사회-윤리적인 역할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sup>38)</sup> 정치, 종교, 사회 실존적 정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동시에 종교 자체가 공공의 영역이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한 인간으로서 삶의 과정을 살았던 루터는 인류학적이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인간 배우였다.<sup>39)</sup> 본질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종교인이자 사회 내 역할을 수행하는 인간으로서 살았던 루터는 진리 안에서 드라마틱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상처 받은 세계를 위해 책임을 지며 공적인 삶을 살았

38) 위의 논문, 127-30, 134-5.

39) 발타살은 바이온(Bion of Borysthens)의 ‘역할’ 개념과 텔레스(Teles)와 에픽테투스(Epictetus)의 ‘좋은 배우’ 개념을 인용하여 설명한다. CF. 위의 논문, 126-7; Balthasar, *Theo-Drama I*, 140-2.

던 훌륭한 인간 배우였던 것이다.<sup>40)</sup>

#### IV. 나가는 말

본고는 영화 매체를 통해 재현된 과거 종교개혁 시대와 그 시대를 살았던 루터와 군중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데서 출발했다. 두려움과 자비라는 두 이미지를 중심으로 작품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두려움의 주체와 요소인 하나님, 죽음, 지옥의 이미지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루터와 군중의 모습을 살필 수 있었으며, 루터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비의 주체와 요소인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 말씀의 이미지를 통해 비본질적 두려움들이 극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루터가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심판주 그리스도였다면, 영화 속에서 루터가 자신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 찾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었다. 죽음과 지옥이라는 두려움의 이미지에 사로잡혀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소망 없이 살았던 군중들의 모습이 당시의 일반적 모습이라면, 영화 속 루터는 예배와 설교를 통해 십자가와 그리스도 중심 신학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올바른 구원관을 세우려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들은 종교개혁의 시대에 루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단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소명을 감당했는지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 미루어 짐작케 해 준다.

영화 <루터>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화연출을 통해 그 시대와 루터의 모습을 잘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으로써 루터의 이미지에 대한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산해 낸다. 그리고 본고는 그러한 가

---

40) Ben Quash, "Drama and the Ends of Modernity," in *Balthasar at the End of Modernity* (Edinburgh: T&T Clark, 1999), 140-1, 150, 169; Balthasar, *Theo-Drama II*, 51.

능성을 다시 이미지와 드라마 미학을 통해 재해석한다. 이런 작업이 가능한 기본 전제는 1517년 전후를 살았던 실제 루터와 역사와 텍스트들 속의 루터 그리고 영화 속의 루터가 모두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는 객관적인 역사적 텍스트 속의 루터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역사신학, 조직신학, 심리학 등 학문과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관점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영화를 통해 새롭게 재현된 루터에 대해 드라마 미학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재해석함으로써 행간에 대한 창의적이고 풍성한 고찰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는다. 물론 드라마 미학 방법론을 통해 영화 이미지를 해석하는 데에는 그 정도와 한계에 따른 우려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고 세밀한 역사적 고증 작업과 다른 방법론들의 개연성 있는 해석학적 통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두려움과 자비의 이미지를 통해 영화 <루터>의 중요한 장면들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을 각 이미지 안에서 융복합적으로 고찰한 뒤 드라마 미학적 요소들을 통해 루터를 재해석했던 과정은, 인간 루터가 삶의 여정 속에서 고민했던 신앙과 신학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감하며 좀 더 깊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나아가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과 구원관 그리고 윤리적 삶을 살아야할지 고민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드라마 미학을 통해 살핀 루터 시대의 배경 그리고 그의 생애와 사상의 과정을 미루어볼 때 루터는 신적-드라마의 저자와 연출가인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추어 주인공 예수를 미메시스한 훌륭한 인간 배우였다. 두려운 하나님 그리고 죄와 사회적 실존이라는 고통 앞에서 항상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존재적 고민으로 괴로워했던 약자 루터는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신적 소외에 참여하여 시대적 정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까지 변화된다. 루터는 종교적-정

치적 세력으로부터 억압 받고 소외를 당할지언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오직 성경, 그리스도, 은혜, 믿음,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다. 영화 속 루터는 말씀을 근거로 삼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삶,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년 이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과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먼저, 영화 속에서 본질을 붙잡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루터의 모습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섭리를 바라보는 청중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자신들의 정체성과 역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영화에 흐르는 두려움의 실존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흐른다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루터가 찾았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는 교회와 종교지도자들이 잘못된 교리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르치는 폭력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본질을 추구하는 기독교 미학적 윤리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신적 소외를 통한 희생을 미메시스함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 인간 배우들은 새로운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 시대에 루터처럼 오직 긍휼과 자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넘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위한 가능성의 아름다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sup>41)</sup>

41) 구속사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구도로 볼 때, 실현된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하는 신적 아름다움을 말한다면, 가능성의 아름다움은 삶의 무대에서의 성장과 성화의 가능성으로서 구원하는 인간적 아름다움을 말한다. 박형철,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51-52 참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 참고문헌

- 김신춘. 『감각과 초월: 발타살의 신학적 미학』. 서울: 분도출판사, 2003.
- 김선영. “신성로마제국 선제후령 작센의 프리드리히 현공에게 마르틴 루터의 의미,” 『한국기독교신학논총』 98(2015), 58-90.
- 김효중. “루터의 발자취,” 『루터 연구』 12(1997), 135-147.
- 맹수진, 모은영. 『진실 혹은 허구, 경계에 선 다큐멘터리』. 서울: 도서출판 소도, 2008.
- 박형철. “성서와 그리스 비극에 나타나는 인간 실존 관련 단어들에 대한 비교 연구: hubris, hamartia, thanatos, phobos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38(2016), 140-158.
- \_\_\_\_\_. 『아름다움을 통해 완성되어가는 구원의 드라마: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살의 신적-드라마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2015.
- 신원하. “자살과 구원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분석과 목회윤리적 성찰,” 『기독교사회윤리』 23(2012), 187-220.
- 홍지훈. “초기 비텐베르크 종교개혁에서 “신앙 약자 보호” 문제에 대한 루터와 칼슈타트의 논쟁,” 『한국교회사학회지』 13(2003), 351-382.
- Bainton, R. H..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홍치모, 이훈영 역. 『종교개혁사』.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Bauman, Michael, and Martin Klauber. *Historians of the Christian tradition: Their Methodology and Influence on Western Thought*. 라은성 역. 『기독교 역사가들』. 서울: 이레서원, 2002.
- Erikson, E. H.. *Young man Luther: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History*. 최연석 역. 『청년 루터』.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Grant, Reg. *Storm*. 홍종락 역. 『마르틴 루터』. 서울: 홍성사, 2004.
- Marsh, C. and G. W. Ortiz. *Explorations in Theology and Film: An Introduction*. 김도훈 역.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 영성』. 파주: 살림출판사, 2007.
- Aufderheide, Patricia. *Documentary Fil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Bainton, R. H., *Here I Stand: A Life of Martin Luther*. New York: Mentor Book, 1950.

Balthasar, Hans Urs von. Trans. Graham Harrison, *Theo-Drama: Theological Dramatic Theory*, I-V. San Francisco: Ignatius Press, 1988-98.

Dawe, R. D., "Some Reflections on Ate and Hamartia," in *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sophy* 72, 1968.

Quash, Ben. "Drama and the Ends of Modernity." in *Balthasar at the End of Modernity*. Edinburgh: T&T Clark, 1999.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26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 국 문 초 록 •

---

본고는 드라마적 텍스트인 영화 <루터>를 드라마 미학 이론을 통해 고찰한다. 드라마 미학은 재현된 이미지 속 세상과 인간을 통감각적 이해를 통해 수용하게 해 주는데, 이는 루터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심리적 해석 등 다양한 방법론적 해석들을 이미지들 속에서 통합적 고찰을 통해 그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를 시도한다. 본고는 특별히 두려움과 자비라는 두 이미지를 통해 <루터> 속에 재현된 루터와 군중의 이미지들을 살피고 신학적 인물이 아닌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 루터가 두려움을 비롯한 시대의 비본질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드라마 미학을 통해 조망한다. 본고는 두려움과 자비가 영화 속 실존과 구원의 이미지를 대표한다는 전제 하에 두려움의 주체와 요소인 하나님, 죽음, 지옥의 이미지를 통해 화면에 나타나는 루터와 군중의 모습을 살피고, 루터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비의 주체와 요소인 하나님, 십자가, 그리스도, 말씀의 이미지를 통해 비본질적 두려움들이 극복되는 모습을 살핀다. 드라마 미학을 통해 살핀 루터는 신적-드라마의 저자와 연출가인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추어 주인공 예수를 미메시스한 인간 배우였다. 또한 인류학적이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정치, 종교, 사회 실존적 정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종교개혁 시대에 공공의 영역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을 잘 감당했다. 본질을 추구했던 루터는 진리 안에서 드라마틱한 사회적인 존재로서 상처 받은 세계를 위해 책임을 지며 공적인 삶을 살았던 훌륭한 인간 배우였던 것이다. 본고는 루터의 삶과 신학적 주제들을 영화 매체를 통해 다룸으로써 텍스트 속 역사와 인물과 교리들에 대해 새롭고 유연한 방법론적 접근과 비평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이미지와 상상을 통해 텍스트 속 행간을 읽어냄으로써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유익은 신학적 담론들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미학적-윤리적인 삶과 신앙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루터, 드라마 미학, 이미지, 두려움, 자비

---